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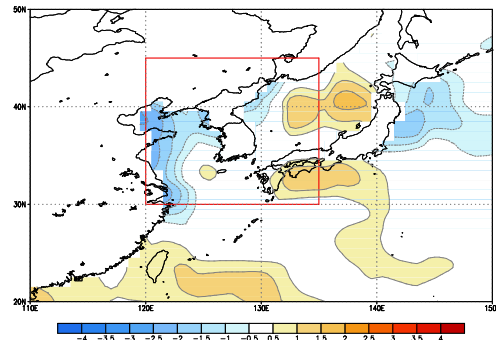


이상기후 감시 Updat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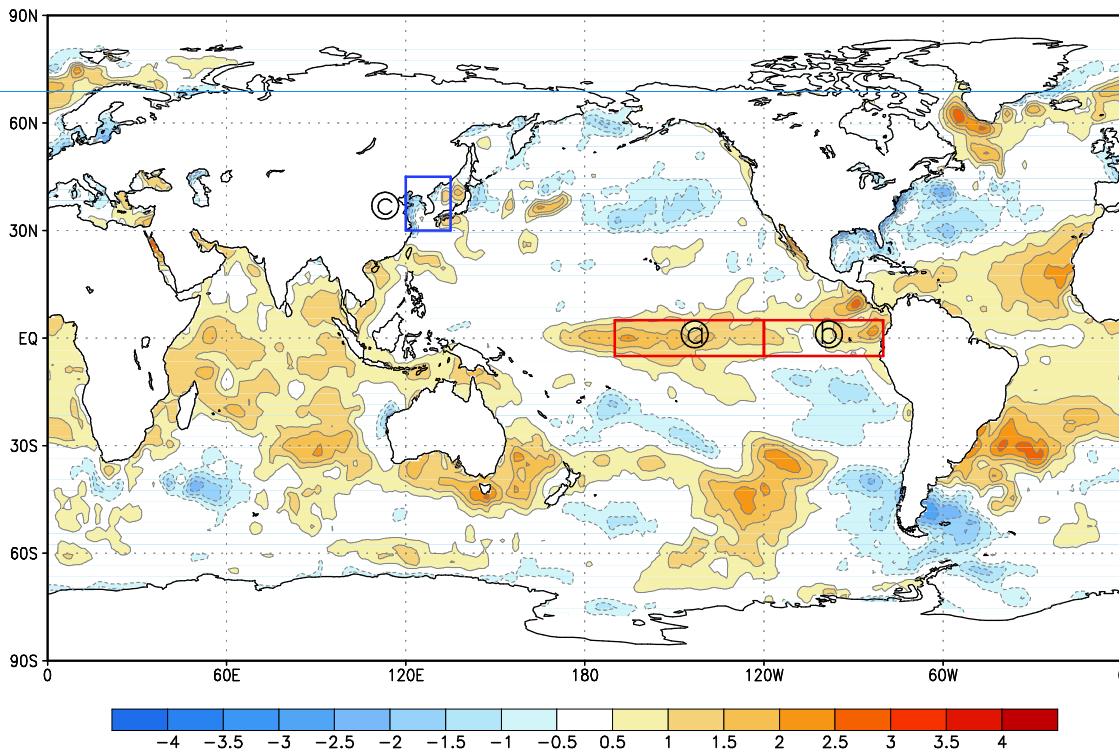
기상청 기후예측과 <http://www.kma.go.kr>

◆ 해수면온도 현황

고수온의 중심이 열대 중태평양에서 나타나는 가운데, 엘니뇨 감시구역(ⓐ: Niño 3.4, 5°S~5°N, 170°W ~120°W)의 평균 해수면온도는 평년보다 약 1.3°C 높은 상태를 보였으며, 열대 동태평양 (ⓑ: 5°S~5°N, 120°W~80°W)에서도 평년보다 약 0.8°C 높게 나타나고 있다. 우리나라 주변(ⓒ: 30°N~45°N, 120°E~135°E)의 해수면온도는 평년보다 0.3°C 정도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.



우리나라 주변 해수면온도 편차



해수면온도 편차 (2010.2.14~2.2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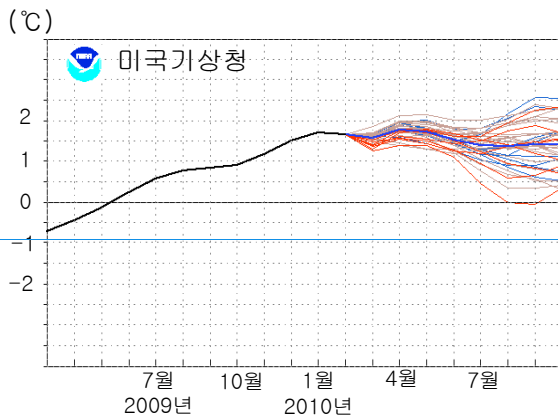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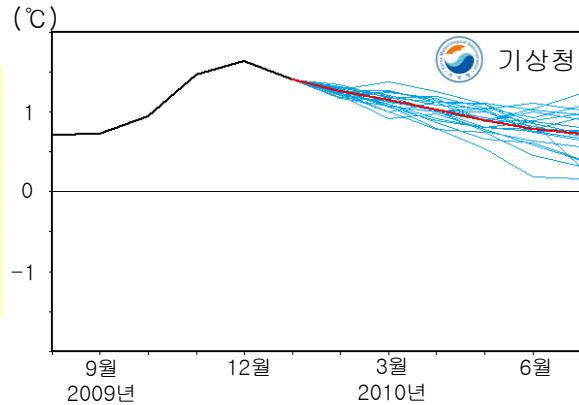
기상청 웹진 '이상기후 감시 Update'를 구독하고자 하시는 분은 기후예측과 (cl_pre@kma.go.kr)로 구독자 성명과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

엘니뇨 / 라니냐 예측 및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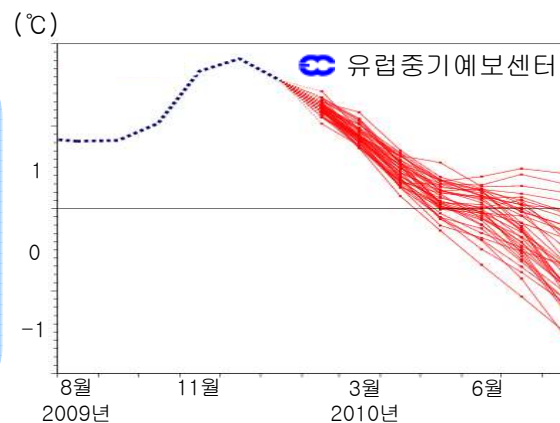
※ 엘니뇨 감시구역 (Niño 3.4 : 5°S~5°N, 170°W~120°W)

기상청 엘니뇨 예측모델 결과에서는 엘니뇨 현상이 2009년 12월에 최대가 나타난 후 세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으나, 2010년 7월까지의 엘니뇨 감시구역에서의 해수면온도가 0.5℃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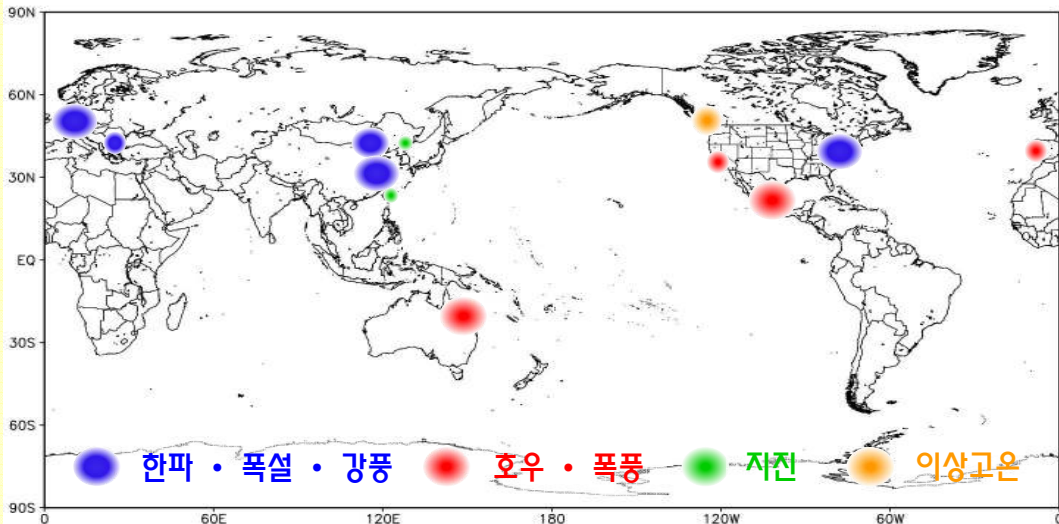
미국 기상청 엘니뇨 예측모델(NCEP)은 해수면 온도가 2010년 2월부터 6월까지 1.7℃ 정도를 유지하다가, 6월 이후에 조금 약해져 10월까지 큰 변동 없이 약 1.2℃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.

유럽중기예보센터(ECMWF)에서의 엘니뇨 예측 모델 결과를 살펴보면, 엘니뇨 현상은 12월에 최대가 나타난 후 2010년 1월부터 급격하게 낮아져 4월 이후 정상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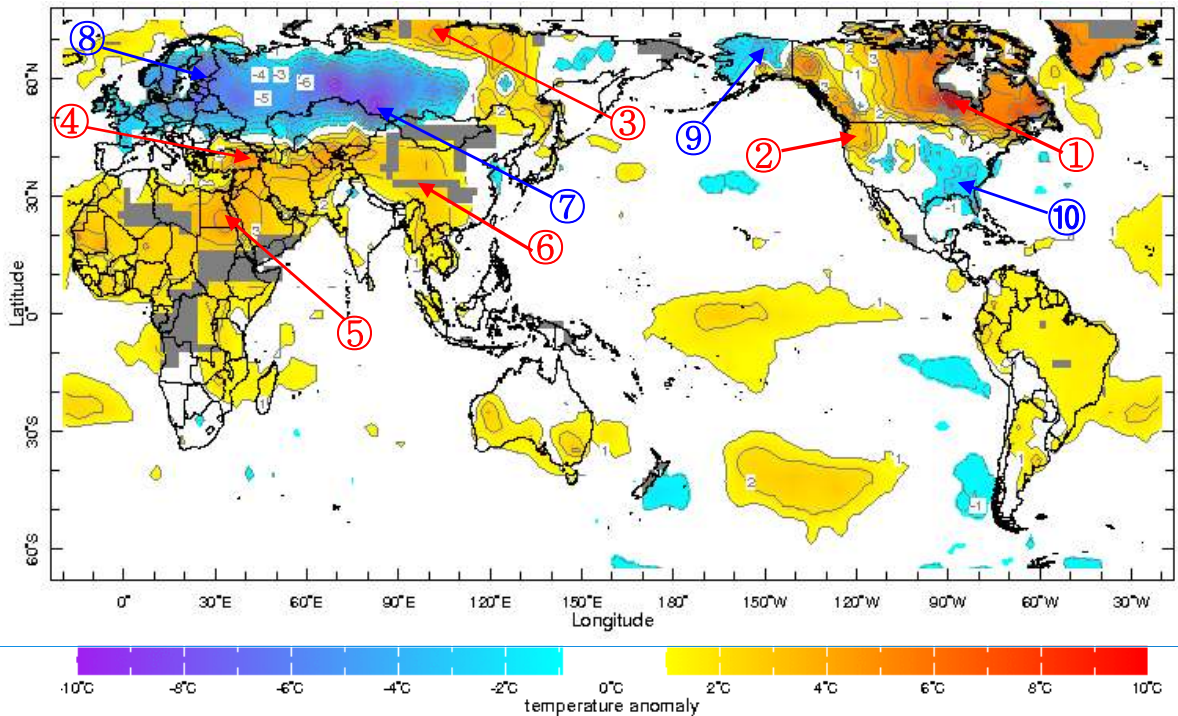
엘니뇨 예측모델 결과에 의하면 2010년 봄철까지 엘니뇨가 지속되겠으나 세력은 점차 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.

세계의 기상재해 (2010년 2월)



- 5~9일 : 미국 동북부에 눈폭풍으로 인해 비상령이 발령되고 도시기능이 마비됨.
 - 워싱턴은 누적 적설량이 142cm로 국제공항이 폐쇄되고 정전사태 발생.
 - 뉴욕에서는 휴교조치 및 공공기관 폐쇄.
 -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는 누적 적설량이 183cm로 최고치 기록.
- 6일 :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함.
- 7일 : 호주 퀸즐랜드에서는 하루동안 400mm 이상 내린 폭우로 인해 도시가 잠김.
 - 멕시코도 기록적인 폭우로 29명이 숨지고 가옥이 2000채 이상이 부서짐.
 - 대만 동부 해안에서는 규모 6.3 규모의 강진이 발생함.
- 8일 : 동유럽에서는 폭설로 인해 주요 고속도로가 폐쇄되고 항공편과 열차운행이 지연되었으며, 정전사태가 발생.
 - 오스트리아 : 스키와 스노보드를 타던 12명이 눈 산사태로 사망.
 - 루마니아 : 40cm 정도의 적설량을 기록하며 주요도로가 폐쇄되고 휴교 및 열차운행 중단됨
 - 불가리아 : 북부 및 북동부에서는 60cm의 적설량을 기록하면서, 160여 개가 넘는 도시와 마을에서 정전사태 발생 및 비상사태가 선포됨.
- 8일 : 중국 서북부 지역과 베이징 등에서 폭설로 교통대란 발생.
- 9~11일 : 중국 장쑤, 허베이 등 9개 성에 폭설과 한파로 버스운행이 중단되고 항공이 120편이 연착되었으며, 600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함.
- 14일 : 밴쿠버에서는 4일 연속 비가 내린 가운데, 이상 고온으로 인해 동계올림픽 일정이 차질을 빚음.
- 18일 : 북한과 중국, 러시아 접경지역에서 규모 6.9의 강진이 발생함.
- 20일 : 포르투갈의 마데이라 섬에 폭우와 산사태로 인해 최소 42명이 숨지고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함.

세계의 기온현황 (2010년 1월)



2010년 1월 기온편차

2010년 1월의 전지구 월평균 기온은 20세기 평균(12.0°C, 1901~2000년) 보다 0.6°C 높았으며, 이는 1880년 이래 **네 번째 높은** 기온이다. 반구별 월평균 기온은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20세기 평균보다 각각 0.83°C, 0.52°C 높았다. 우리나라의 2010년 1월의 기온은 평년(1971~2000년, -1.0°C)보다 0.6°C 낮아 1973년 이래 아홉 번째 낮은 기온을 기록하였다.

★ 고온

캐나다(①), 미국 서부(②), 러시아 북부(③), 유럽 남부(④), 아프리카(⑤), 아시아 일부(⑥) 등의 지역에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였다.

★ 저온

러시아 대부분(⑦), 유럽 대부분(⑧), 알래스카 서부(⑨), 미국 남동부(⑩) 등의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였다.